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은희<sup>1</sup> · 장인순<sup>2</sup>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1</sup>,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2</sup>

##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Eun Hee Choi<sup>1</sup> · In Sun Jang<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79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7.0. **Results:** As a result, the average major satisfaction was 4.08 out of 5, the average self-esteem was 3.02 out of 4, the average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87 out of 5, and college life adjustment was 3.77 out of 5.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Self-esteem ( $\beta=.33, p<.001$ ), major satisfaction ( $\beta=.24, p=.003$ ), and major satisfac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 $\beta=.22, p=.002$ )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These factors explained 47.7% of college life adjustment ( $F=24.22, p<.001$ ).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College life adjustment; Student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년 실업은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한국 교육개발원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8년 64.2%에서 2019년 63.3%로 감소했으며, 인문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9년 56.2%로 나타났다[1]. 이 처

럼 청년 실업에 대한 불안과 취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대학 진학 시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나 심각한 고민 없이 타 학과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는 간호대학생이 늘고 있다[2].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신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심리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3].

Corresponding author: In Sun Jang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32 Dongil-ro, 214-gil, Nowon-gu, Seoul 01757, Korea.  
Tel: +82-2-950-5485, Fax: +82-70-4275-0163, E-mail: agape90@korea.com

Received: Nov 13, 2021 / Revised: Dec 7, 2021 / Accepted: Dec 7,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학과 특성상 과중한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하므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대학생활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4],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타학과 학생들과는 다른 양상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4], 스트레스[5-7], 건강증진행위, 자아효능감[4-7], 대학생활만족도, 건강상태[5], 생의 의미, 극복력[6], 정신적 웰빙, 교수신뢰, 학습몰입[8], 전공만족도[4,6,8]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 간호학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의 과정이다[9].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수업과 학교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10]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게 되어 재학 중이나 혹은 졸업 후에도 전공을 포기할 수 있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은 추후 간호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등이 심리적 현상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는 것[11]으로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12].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간호 전문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준다[13].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간호전문직관은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므로[14], 간호학생 시기에 간호학을 공부하며 형성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진로를 준비하고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간호를 수행하고 병원에 잘 적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전문직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로 준비행동[15], 전공만족도[16,17], 자아존중감[17],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자기효능감[16], 스트레스 대처, 임상간호인성[2] 등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활과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자

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등 개별적인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있었으나 세 변수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이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수는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로 검정력 .95, 예측요인 9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한의 표본수로 166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8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여 총 179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였다. 설문조사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자발적인 연구참여의 동의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5-10분 정도였고, 완성한 설문지는 바로 회수용 봉투에 넣은 후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4. 연구도구

#### 1) 전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Ha [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도구는 대학생의 학과만족을 평가하는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 [9]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11],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1]가 개발하고 Lee와 Won [18]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Won [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로[19], 본 연구에서는 Yeun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총 29문항이며, 하위영

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 [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다[20].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 현실에 맞도록 Jeong과 Park [21]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의 5개 요인으로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g과 Park [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혹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필요시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1.6%(164명)로 대부분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26.3%(47명), 2학년이 26.8%(48명), 3학년 22.3%(40명), 4학년 24.6%(44명)로 나타났다. 종교는 75.4%

(135명)가 기독교였으며, 학과 선택동기는 39.1%(70명)가 ‘적성에 잘 맞아서’라고 답하였다. 현재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39.7%(71명)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입학 시 전공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72.6%(130명)를 차지하였고, 지난 학기 성적은 3.0 이상 3.5 미만이 40.8%(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5 이상 4.0 미만이 37.4%(67명)를 차지하였다 (Table 1).

##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4.08 \pm 0.50$ 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3.02 \pm 0.46$ 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87 \pm 0.44$ 점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77 \pm 0.56$ 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9)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5 (8.4)
	Female	164 (91.6)
Grade	1st	47 (26.3)
	2nd	48 (26.8)
	3rd	40 (22.3)
	4th	44 (24.6)
Religion	Christian	135 (75.4)
	Catholic	4 (2.2)
	None	40 (22.4)
Current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Dissatisfied	28 (15.7)
	Usually	71 (39.7)
	Satisfied	65 (36.3)
	Very satisfied	15 (8.4)
Major satisfaction of entrance into a school	Dissatisfied	10 (5.6)
	Usually	39 (21.8)
	Satisfied	86 (48.0)
	Very satisfied	44 (24.6)
Last semester grades	≤ 2.9	23 (12.8)
	3.0~3.4	73 (40.8)
	3.5~3.9	67 (37.4)
	≥ 4.0	16 (9.0)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179)

Variables	n	M±SD	Range	Min	Max
Major satisfaction	18	$4.08 \pm 0.50$	1~5	2.33	5.00
Self-esteem	10	$3.02 \pm 0.46$	1~4	2.00	3.90
Nursing professionalism	29	$3.87 \pm 0.44$	1~5	2.93	5.00
College life adjustment	19	$3.77 \pm 0.56$	1~5	2.37	5.00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 $F=4.77, p=.003$ ), 현재 대학생활만족( $F=11.74, p<.001$ ), 입학 시 전공만족( $F=15.19, p<.001$ ), 지난학기 성적( $F=3.61, p=.01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1학년이 4학년보다, 현재 대학생활만족은 매우 만족한 경우가 불만족보다, 입학 시 전공만족은 매우 만족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지난학기 성적은 3.5-3.9점인 경우가 2.9점 이하인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현재 대학생활만족( $F=11.87, p<.001$ ), 입학 시 전공만족( $F=7.66, p<.001$ ), 지난학기 성적( $F=4.97, p=.002$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현재 대학생활만족에서 매우 만족이 불만족보다, 입학 시 전공만족에서 매우 만족이 보통보다, 지난학기 성적은 3.5점 이상인 경우가 2.9점 이하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학년( $F=7.73, p<.001$ ), 현재 대학생활만족( $F=10.42, p<.001$ ), 입학 시 전공만족( $F=7.55,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1학년과 2학년이 4학년보다, 현재 대학생활만족에서 매우 만족이 불만족보다, 입학 시 전공만족에서 매우 만족이 보통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현재 대학생활만족( $F=9.64, p<.001$ ), 입학 시 전공만족( $F=12.20, p<.001$ ), 지난학기 성적( $F=3.64, p=.003$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현재 대학생활만족에서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시 전공만족에서 매우 만족이 보통과 만족보다, 지난학기 성적은 3.5점 이상인 경우가 2.9점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3).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 $r=.59, p<.001$ ), 자아존중감( $r=.59, p<.001$ ), 간호전문직관( $r=.45,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생활 만족, 입학 시 전공만족, 지난학기 성적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의 3개 변수를 포함한 총 7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3.**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Variable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4.08±0.47	-0.01	3.06±0.43	0.31	3.92±0.52	-0.87	3.71±0.42	-0.47
	Female	4.08±0.50	(.991)	3.02±0.46	(.760)	4.03±0.45	(.384)	3.78±0.57	(.640)
Grade	1st <sup>a</sup>	4.28±0.51	4.77	3.12±0.52	1.59	4.19±0.44	7.73	3.95±0.67	2.23
	2nd <sup>b</sup>	4.04±0.50	(.003)	2.97±0.49	(.194)	4.11±0.37	(<.001)	3.74±0.54	(.086)
	3rd <sup>c</sup>	4.09±0.49	a > d	3.09±0.41		3.95±0.54	a, b > d	3.70±0.47	
	4th <sup>d</sup>	3.90±0.42		2.94±0.35		3.79±0.36		3.68±0.47	
Religion	Christian	4.07±0.53	0.25	3.03±0.45	0.83	4.03±0.46	0.32	3.77±0.56	0.02
	Catholic	3.94±0.26	(.778)	3.25±0.65	(.440)	3.95±0.50	(.725)	3.76±0.57	(.977)
	None	4.11±0.41		3.00±0.45		3.97±0.46		3.75±0.55	
Current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Dissatisfied <sup>a</sup>	3.75±0.52	11.74	2.78±0.42	11.87	3.71±0.33	10.42	3.51±0.56	9.64
	Usually <sup>b</sup>	3.97±0.44	(<.001)	2.93±0.43	(<.001)	3.94±0.47	(<.001)	3.62±0.48	(<.001)
	Satisfied <sup>c</sup>	4.23±0.39	a < d	3.16±0.40	a < d	4.17±0.40	a < d	3.93±0.52	a < c < d
	Very satisfied <sup>d</sup>	4.59±0.55		3.41±0.45		4.29±0.47		4.31±0.52	
Major satisfaction of entrance into a school	Dissatisfied <sup>a</sup>	3.79±0.80	15.19	2.98±0.53	7.66	3.88±0.69	7.55	3.84±0.71	12.20
	Usually <sup>b</sup>	3.80±0.43	(<.001)	2.82±0.33	(<.001)	3.77±0.35	(<.001)	3.50±0.45	(<.001)
	Satisfied <sup>c</sup>	4.05±0.38	a, b, c < d	3.00±0.42	b < d	4.05±0.43	b < d	3.67±0.46	b, c < d
	Very satisfied <sup>d</sup>	4.44±0.48		3.27±0.50		4.20±0.43		4.20±0.56	
Last semester grades	≤ 2.9 <sup>a</sup>	3.86±0.056	3.61	2.76±0.40	4.97	3.89±0.53	1.09	3.44±0.92	3.64
	3.0~3.4 <sup>b</sup>	4.03±0.46	(.015)	2.98±0.45	(.002)	4.03±0.44	(.357)	3.72±0.52	(.003)
	3.5~3.9 <sup>c</sup>	4.22±0.44	a < c	3.13±0.44	a < c, d	4.07±0.05		3.91±0.57	a < c, d
	≥ 4.0 <sup>d</sup>	4.05±0.68		3.18±0.44		3.93±0.44		3.88±0.61	

**Table 4.** Correlational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179)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justment
	r (p)	r (p)	r (p)	r (p)
Major satisfaction	1			
Self-esteem	.54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57 (<.001)	.42 (<.001)	1	
College life adjustment	.59 (<.001)	.59 (<.001)	.45 (<.001)	1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0.77	0.33		2.33	.021
Current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1=Satisfied)	0.09	0.07	.08	1.15	.252
Current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1=Very satisfied)	0.03	0.12	.02	0.24	.809
Last semester grades* (1= $\geq$ 3.5)	0.09	0.08	.06	1.14	.258
Major satisfaction of entrance into a school* (1=Very satisfied)	0.29	0.09	.22	3.09	.002
Nursing professionalism	0.12	0.08	.10	1.52	.131
Major satisfaction	0.26	0.09	.24	2.97	.003
Self-esteem	0.40	0.08	.33	5.02	< .001

Adj.  $R^2$ =.477, F=24.22,  $p$ <.001

\*Dummy variable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사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대학 생활 만족은 불만족과 보통을, 입학 시 전공만족은 매우 만족이 아닌 경우를, 지난학기 성적 변수는 3.5점 미만을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는 .45-.95로 모두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uence Factor, VIF)은 1.05~2.23으로 모두 10보다 작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65로 2에 가까워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 =.33,  $p$ <.001), 전공만족도( $\beta$ =.24,  $p$ =.003), 입학 시 전공만족( $\beta$ =.22,  $p$ =.00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입학 시 전공만족이 높은 경우에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은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47.7%의 설명력을 보였다(Adj.  $R^2$ =.477, F=24.22,  $p$ <.001)(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과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8점으로 전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86점[22], 3.83점[23]과 유사하며, 3.28점[17]보다는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4]

의 4.06점과도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1학년이 4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간호학과 1학년이 2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고, 4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와 일부 유사하다[22].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교양교과목을 주로 수강하면서 전공에 대한 부담 없이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배움의 기대와 열정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이는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학년에 따라 전공만족도는 변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입학 시 전공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학 시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최근 높은 취업률 때문에 적성과 상관없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입학 시에 지원 동기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전공만족도를 확인하여 집중적인 지도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4점 만점에 3.02점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의 3.12점과 유사하며, 1학년부터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3] 2.65점보다는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다른 도구로 측정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와는 비슷한 결과를,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6]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학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

감을 관리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26].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지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3.87점으로, 다른 연구에서의 3.97점[22]과 유사하고, 3.06점[17]보다는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또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의 3.62점과는 유사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27]이므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학교 내에서의 전공수업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연구 학술제, 나이팅게일선서식 등을 통해 전공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을 느끼게 되면 학생 스스로 간호전문직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으로 이어져 졸업 후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2학년이 4학년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22]와 유사하다. 1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과 전공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호전문직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전문직관의 하부 개념을 고려하여 간호의 사회적 인식,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및 독자성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공교육 과정 및 임상실습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9].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즉, 선배 및 졸업생과의 만남, 간호리더십 관련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선택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이 확립되도록 지원해야 한다[9].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7점으로 전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의 3.24~3.34점[5,22,26]보다는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이는 연구대상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 담당 교수와의 정기적인 면담 등 다양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26]에 참여한 결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학생활만족에서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Yoo [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

응을 유의하게 예측해 준 변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만족도 및 건강상태로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입학 시 전공만족에서 매우 만족이 보통과 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학 시 전공만족도는 앞으로의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이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22].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및 입학 시 전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정도는 47.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 자기효능감, 학교성적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은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었다[13].

입학 시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요인으로 입학 시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대학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27]임을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사료되나 확인을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전공 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전공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지각 정도 모두가 전공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9] 이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의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재정비, 동아리 활동과 상담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23], 대학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도 요구된다[26]. 즉, 간호 전문직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자부심을 가지며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전공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며 이에 근간이 되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가피한 병역이나 건강문제의 이유가 아닌 경우로 휴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휴학의 원인을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돕는 작업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복학 시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9].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남학생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하여 수행하는 다각적인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1, 2학년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3, 4학년은 대면수업과 임상실습이 어렵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과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전공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강화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비교과 활동의 개발 및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반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입학 시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입학 시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2019 school year nationwide college recruit unit admission quota [Internet]. Sejong: Author; 2020 [cited 2021 January 05]. Available from: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314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3&ts=moe&tm=0204&opType=N>
2. Lim S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10(5):51-59.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5.051>
3. Lee JH, Yun MH, Kang CW, Ko MN, Kang JI, Lee JH, et al.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feasibility study of DEU GRIT scale for successful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ed on the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8;20(2):983-1006. <https://doi.org/10.37727/jkdas.2018.20.2.983>
4. Choi SO, Park JK, Kim SH.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182-189.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182>
5. Yoo KH.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3):269-27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69>
6. Lee JL, Park SJ.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1):66-75.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66>
7. Cha HS. Influence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8):381-391. <https://doi.org/10.5762/KAIS.2019.20.8.381>
8. Chin EY, Jung CH. The effect of mental well-being,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Health & Welfare*. 2020;22(1):151-176. <https://doi.org/10.23948/kshw.2020.03.22.1.151>
9.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p. 1-87.
10. Tessema MT, Ready K, Yu WW.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

- 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2;2(2):34-44.
11. Rog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 1-326.
  12. Clark L, Thornam C. Using education technology to teach cultural assess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2;41(3): 117-120.
  13. Oh J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0):873-884.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73>
  14. Weis D, Schank M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0;27:114-120.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15.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62-71.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62>
  16. Ham YS, Kim H, Cho, IS, Lim, JY.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 536-544.
  17. Lim SY, Kim SY, Choi HM.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15;1(2):45-51. <https://doi.org/10.17703/JCCT.2015.1.2.45>
  18. Lee HJ, Won H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noid tendencies, self-concept, and self-consciousnes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1):277-290.
  19.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20. Baker RW, Siryx B.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21. Jeong EI, Park 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009;21(2):69-92.
  22. Choi HJ.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6):68-77.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23. Jeong G, Park E. Relationships among the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19;7(4):253-263. <https://doi.org/10.15268/ksim.2019.7.4.253>
  24. Lee K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20;27(3):316-324. <https://doi.org/10.5953/JMJH.2020.27.3.316>
  25. Choi YS, Lee EJ.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daptability to university on career identity among mal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3):583-593.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3.055>
  26. Park HJ, Byun EK, Yang HJ. Influence of self-esteem,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2): 627-636.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2.056>
  27. Cho KJ, Park SN. Comparing nursing perspective between BSN and RN-BSN program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10(4):417-425.